

“취임 2년에 즈음하여...
가장 곤은 길이 가장 빠른 길”



김 만 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지난 2006년 3월, 한국오리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오리업계에 산재해 있는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시를 비롯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등장해 우리 오리업계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전에 없는 산업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내기도 한 시간이었다.

“ 2008년 2월, 첫, 처음, 새로움이 전하는 설렘과 기대와 희망을 품어도 모두 허락되는, 가슴시리도록 고마운 한 해의 시작인 1월, 그런 1월의 설렘을 가지고 일차게 계획하고, 소중하게 다듬어야 할 2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같은 일상이 펼쳐지는 듯 느껴져 '지루하다' 는 생각을 시는 동안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꼭 한가지만이라도 꿈을 품어 보십시오. 입으로, 가슴으로, 일기장에 글로... 꿈을 가진 이는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순간, 강해집니다. 어쩐지 2008년 2월에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새로운 2008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의 종이 울린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지난 해 이맘 때에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된 HPAI로 인해 오리산업에 종사하던 관계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올해는 본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정부당국이 연계하여 전화예찰, 키트진단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도 지금까지 큰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큰 시름은 덜고 있지만 아직 AI특별방역예찰기간이 한달 여 남았기 때문에 방역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6년 3월, 한국오리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오리업계에 산재해 있는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AI를 비롯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등장해 우리 오리업계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전에 없는 산업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내기도 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필자는 본지 신년호 권두언에서 2007년에 꼭 완수하여야 할 사업 5가지를 언급한 바 있었다.

- 첫 번째로, 오리자조금 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한국오리자조금위원회를 출범하고, 협회 회원 거출금과 농림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예산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2배 증액된 2억원의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회비납부 및 회원관리 체계 재확립의 경우, 지난 2007년 총회에서 계열, 유통, 부

화, 사육 회원의 회비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우편 조사를 통해 사업규모와 폐업 유무 등을 조사,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계열·부화 회원의 2007년 회비 납부율 100%(3/4분기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사육회원 회비납부율도 크게 상승**하였다.

- 세 번째로, GPS 사업의 경우 전남 나주에 KGPS 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경에는 **국내 PS 생산 및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네 번째로, 종오리 등록제 사업의 경우 GPS 사업 추진에 따라 국내 사육중인 페킨종 종오리 전량을 PS로 교체하고 **본회가 일반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종오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 다섯 번째로,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경우, 전국에 사육되고 있는 오리를 페킨종 PS와 상업용으로 구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계획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해 추진코자 했던 굵직한 주요 사업들 중 상당부분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오리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세미나 활동과 오리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 추진,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축종에 오리부문 편입, 오리 사육 농장에 대한 HACCP 기준 마련 등 오리산업을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